

국토부, 지방 SOC 투자 확대와 공간정보 AI 전환 기반 국토균형발전 전략 추진

해당국가	한국	기관(기업)	국토교통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시·공간
-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-

□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화를 선언하고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SOC 투자 확대와 공간정보 AI 전환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

○ 대통령 업무보고(12.12)에서 발표된 이번 로드맵은 국토 공간정보를 AI 기반 활용 플랫폼으로 전환하고, 예산·조직·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실행 중심 정책으로 설계

- 대한민국을 5국 3특* 초광역권 체계로 재편하여 지방 우선 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신규 고속도로 사업의 대부분을 지방권 중심으로 추진

* 5국 3특 초광역권 : 전국을 5개 대도시 중심 생활권(수도권·부산권·대구권·광주권·대전권)과 3개 특별자치도(제주·강원·전북)로 묶어 서울에 의존하지 않고 각 권역이 자립 성장하도록 하는 국토 구조 개편안

- 2026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기관 이전을 추진하여,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와 지방 성장 기반 확대

○ 공간정보 정책을 AI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설정하고, 2026년 국토위성 2호기 발사와 2030년 전국 도로 정밀지도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기반 마련

-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에 맞춰 cm 단위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,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민간 기업의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여 공간데이터 기반 AI 학습 환경 조성

- 지하 공간정보를 2029년까지 AI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여, 굴착 사고 위험 사전 경고와 지반침하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실시간 제공하는 안전 서비스 구축

□ 도심항공교통(UAM) 상용화와 3기 신도시 입주를 통해 미래형 주거·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 경제 기반 강화 추진

○ 2026년 수도권 실증을 시작으로 도심 상공 기상·전파 환경을 반영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UAM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 배송 경로 설계를 위한 정밀 데이터 구축

-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개시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5만 호 이상 착공과 GTX-A 단계적 개통 및 K-패스 확대를 통해 교통 접근성 개선

- 향후 10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지방 SOC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을 병행하며 수서발 고속철도 코레일·SR 교차 운영을 통해 철도 이용 편의 개선

○ 대규모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데이터 관리 체계 정비 추진

- 공공기관 이전 일정에 따른 부작용과 지자체 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기반 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 인프라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

- 분산된 공간정보 데이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국토 관리 정책의 실행력 강화

※ 출처 : 커넥트 데일리(2025.12.12), 국토부, 지방 SOC 올인...공간정보의 AI 대전환 예고